

야외활동 적은 겨울철 시력교정 최적

증상 따라 라식·라섹·ICL 등 시력교정술 다양 3D스마일수술, 수술 일상 복귀 시간 빨라 인기

1년 중 안과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바로 겨울방학이다. 야외활동이 적은 겨울동안 시력교정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식과 라섹, ICL 등 방법과 장비도 다양한 시력교정술. 국내에서 실시되는 시력교정술은 한해 20만 건이 넘는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지만 시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수술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시력교정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시술법은 무엇일까. 보안안과병원 조용운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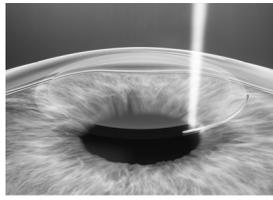
△라식 VS 라섹
라식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어 뚜껑처럼 열어놓은 뒤 수술이 진행된다. 각막을 깎은 후 열어 놓았던 절편을 그대로 덮어 놓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2~3일이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 주의해야 한다.

라섹수술은 각막 가장 위쪽의 상피 부분을 얇게 벗겨낸 후 수술이 진행된다. 라섹수술 시 벗겨냈던 각막상피가 재생되기까지 3~4일간 통증은 느낄 수 있으며 완전한 교정시력이 나오기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섹은 라식에 비해 외부 충격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식과 라섹의 장점 결합한 3D스마일수술
3D스마일라식은 레이저가 각막상피를 그대로 두되 교정에 필요한 실질 부분을 2mm이하로 작게 절개해 제거한다. 회복이 빠르면서 외부 충격에 강한 라섹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라식, 라섹의 장점이 합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스마일 수술은 수 년 전부터 시행돼 왔으나 초기 레이저의 한계점 및 경험 부족으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2016년 FDA 승인을 받으면서 적은 레이저량의 '3D 스마일'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훨씬 좋은 시력예후를 보이고 있다.

스마일라식수술은 철저한 검안을 통해 굴절이상에 맞는 두께와 모양의 각막실질을 디자인 해 작은 절개창을 통해 각막내부 실질층을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수술로, 각막 절편을 생성하지 않고 각막에 2m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이 진행된다. 이는 기존 라식수술에서의 각막 절개량 보다 1/10 정도 적은 양으로 각막 절개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각막신경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 안구건조증, 빛반점, 원추각막증과 같은



은 기존 수술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의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또 일반 라식수술이 수술 후 최소 3일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것과는 달리 별도의 회복기간이 필요 없고 통증이 거의 없어 수술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며 수술 후 다음날부터 세안, 샤워, 화장을 할 수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수술이다.

△안내렌즈삽입술 ICL
ICL(안내렌즈삽입술) 시력교정수술은 implantable contact lens or implantable collamer lens의 약자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고 원래의 수정체 위에 삽입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시력교정수술이다. 라식이나 라섹과 달리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 아니므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

특히 레이저수술로 많은 양의 각막을 제거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는 고도근시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교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ICL은 각막의 손상이 없고 반영

구적이며 필요에 따라 렌즈를 제거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력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시교정용 ICL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또 통증이 덜하고 수술 이후 다음날부터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 라식 및 라섹 수술과 달리 수술 후 빛반점이나 눈부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술 전에 불편한 '홍채절개술'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미세한 360 마이크로 구멍이 있는 Aqua ICL로 홍채절개술 없이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해졌다. 아쿠아 ICL은 모든 시술이 단 하루 만에 끝나게 되고, 안압상승이나 백내장 같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게 됐다.

조용운 원장은 "어떤 시력교정술이든 철저한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부작용을 줄이고 교정 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주치의가 처방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움말=조용운 보리안과 원장



몽골 간호학과 교수들이 화순전남대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몽골 간호학과, 화순전남대병원 선진의료 주목 간호협회장 등 10명 방문...첨단설비·간호시스템 살펴

몽골 보건부 관계자와 간호분야 교수진이 최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 첨단의료 시설과 선진간호 시스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남수령 몽골 간호협회장, 세데들람 몽골 민족대 의대학장, 오강체택 몽골민족대 간호학과교수 등 9명의 방문단은 김광숙 간호부장의 안내로 병원 곳곳의 첨단장비와 설비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날 방문 자리에는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들도 함께 했다.

몽골 방문단은 해외환자들의 치료현황과 진료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역량과 전문간호 시스템에 배울 점이 많았다. 산과 숲이 어우러진 병원 주변의 치유환경도 매력적이다. 더 많은 몽골 의료진들이 방문해 견학토록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특히 보호자나 간병인이 머물지 않아도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큰 호기심을 나타냈다.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임상 간호연구, 직급별 워크숍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병원내 600여 명의 간호사 중 석·박사 출신 간호사가 100여명, 중앙·호스피스 등 전문간호사가 수십명에 달하는 등 많은 전문 인력에 놀라기도 했다.

남수령 몽골 간호협회장은 "한국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병원이라는 점에 흥미를 갖고 방문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역량과 전문간호 시스템에 배울 점이 많았다. 산과 숲이 어우러진 병원 주변의 치유환경도 매력적이다. 더 많은 몽골 의료진들이 방문해 견학토록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서 최고 등급 받아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특수건강진단 기관 종합평가'에서 4개등급(S·A·B·C) 중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화합물·중금속·소음·분진 등 다양한 유해인자(179종)에 의한 직업병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진단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특수건강진단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공단과 함께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206개소를 대상으로 △진단 및 분석능력 △시설 및 장비 △진단 신뢰도 △교육 이수 등 73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배학연 병원장은 "호남지역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조선대병원이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시설과 의료진이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전남 건강관리협회
'관절질환 예방' 내일 교육**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25일 오후 4시부터 협회 보건교육관에서 '겨울철 골다공증 및 관절질환 예방하기'를 주제로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골다공증과 관절질환 관련 검진 및 예방법 등에 대해 내분비계내과 이두영 과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골다공증 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겨울철 관절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대병원, 캄보디아서 심장수술 의료봉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윤)이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여 있는 캄보디아에서 심장수술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국제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국제 협력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해당국과의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주도로 시행된 의료봉사는 올해로 세 번째이며, 봉사단은 정인석·김도완 교수를 비롯해 간호사와 체외순환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지속가능한 헌신(Sustainable dedica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봉사단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수도 프놈펜의 '헤브론 병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펼쳤다.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주도로 시행된 의료봉사단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여 있는 캄보디아에서 심장수술 의료봉사를 펼쳤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수술 대상 환자는 미리 선정했으며, 필요한 의

정인석·김도완 교수 등 11명 9일간 '헤브론 병원'서 인술

봉사단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 8명을 수술했으며, 수술 결과는 모두 좋은 상태이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최초로 4kg 미만의 소아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의료계의 큰 관심도 받았다.

또 수술 전 청색증으로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뛰어나다니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인석 교수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투자 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비금도, 임야	거문도, 토지	중동, 근린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매매-4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식,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분할매매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